

각국 태양광발전차액보전제도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임 희진^{1),2)}, 임 영석, 김 동환^{1),2)}

Comparison of PV Feed-in-Tariff Policy Programs

*Heejin Lim, Youngseok Lim and Donghwan Kim

Key words : Feed-in-Tariff(FIT, 발전차액보전제도), Strategy and Direction (전략 및 전망), PV Industry(태양광산업), New and 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 Energy Vision(에너지비전), PV Policy (태양광정책), Energy Security(에너지안보), Green Growth(녹색성장)

Abstract :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정책 기조로 선포하고 태양광에너지를 신성장동력의 주요 분야로 지정하였다. 태양광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중요하고 국내 보급시장 육성을 통한 내수기반을 다지는 일이 필요하다. 태양광 시장을 단기간에 확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발전차액보전제도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유럽 국가들은 태양광에너지를 중앙집중 발전 시스템화하면서 향후 10년 이내에 전력계통의 재생에너지믹스, 전력기반구축 및 시스템전환을 목표로 정부가 발전차액보전제도를 도입하고 지원하고 있다. 유럽 태양광산업협회에서는 태양광에너지가 전 전력원에 차지하는 비율을 2040년에는 42%, 2100년 70%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Grid parity달성을 위한 방법론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전략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태양광기술의 국산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하나로서 태양광발전차액제도분야를 비교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1) 지식경제부 태양광사업단
2)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